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당당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고성은 내가 있어야 할 곳, 식당일·폐지줍기 바빠요”

간성읍 ‘짚나라식당’ 운영 이명옥씨

“이곳 고성엔 젊어서 방황하던 내가 행복을 찾은 곳입니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옥씨(42세, 짚나라식당)는 힘든 일과 중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웃음꽃이 만발했다.

충남 서천 출신이 고향인 이씨는 꽃다운 나이인 21세때 속초로 관광왔다가, 미시령 정상에서 전경에 감탄해 아예 눌러 앉은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아듬해 고성군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어느덧 21년이 흘러 버려 이제는 고성군이 ‘제2의 고향’이 되었죠. 이곳이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23세에 고성에서 결혼해 벌써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다. 요즘은 고성중학교 3학년인 아들 김기훈군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아들 기훈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말쑥한 언부리는 모범적인 아들이다.

그래서인지 이씨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2003년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한 뒤 생활전선에 뛰어든 그녀는 낮에는 식당일을 하고, 이른 새벽과 밤에는 폐지를 주워 내다파는 일을 하고 있다.



“아직 젊는데 열심히 뛰어야죠. 놀면 뭐해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건 보고 싶어요.”

아들을 바라보면 힘이 솟는다는 이씨는 얼마전 차에 불이 나 다 타 버렸다고 했다. 폐지를 줍는 과정에 누군가 담배꽂이를 던져서 불이 난 것 같다고 했다.

어려운 형편에 다시 차량을 구입한 이씨

는 “아들이 이 다음에 낳아주시고 키워 주신 보답은 꼭 하겠다고 말할 때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탔다”며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도 들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여성단체 탐방 ①

여성권익신장·봉사활동 앞장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고성지역 10여개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봉사활동 지원과 여성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신임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희 회장은 요즘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 회장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김 회장은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고성 지역의 대소사를 포함해 자원 봉사를 하는 곳이라면 그곳엔 항상 김회장이 있다.

평소 자원봉사라면 발벗고서라도 나서서 김 회장은 협의회장 활동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어머니 포순이단 단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독거노인 집 청소, 집수리, 목욕봉사 등을 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방범활동을 통해 아동들을 지키는 고성 아동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다.

김회장은 고성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연탄 봉사 활동 등 시간만 된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슈퍼우먼이다.

김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과장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